

장소 문화창조아카데미 홍릉캠퍼스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일시 2017년 9월 28일 ~ 10월 19일
매주 목요일 10:00-12:00

수강료 무료

수강신청 <https://goo.gl/aZ6Pr4>
* 정원 초과시 선착순 마감

수강문의 아카데미운영팀 최수환 과장
swann@kocca.kr
02-6310-0624

포스트디지털 시대의 문화콘텐츠 산업

다-다 오픈강좌/오픈세미나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만물인터넷, 첨가제조(3D프린팅),
청색기술 등 급격한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포스트디지털 시대에
문화예술·과학기술 융합지식의 지평도를 조망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지식 나눔의 장입니다.

2017년 다-다 오픈강좌/오픈세미나는 인공 창의성, 사이버스페이스,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메이커 문화, 지속가능 청색기술, 포스트휴먼이라는 여섯 가지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특강이 진행됩니다.

문화창조아카데미 총감독 이 인 식

“다-다”는 다산茶山과 다빈치를 의미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시간	제목	강사
09월 28일 (목)	10:00-12:00	물질적 전회 (Material turn)	김윤철(전자음악 작곡가, 예술가)
10월 12일 (목)	10:00-12:00	인간의 미래	이광형(카이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10월 19일 (목)	10:00-12:00	포스트디지털 사회	이인식(문화창조아카데미 총감독)

문화창조아카데미



물질적 전회 (Material turn)
2017. 9. 28 (목) 10:00 ~ 12:00

김윤철

- 전자음악 작곡가, 예술가
- 고등과학원(KIAS) 펠로우
- 2016 Collide International Award (CERN & FACT) 수상
- Ars Electronica Festival (Linz), Transmediale (Berlin), VIDA 15.0 (Madrid), International Triennial of New Media Art (Beijing) 등 참여 작가

인간중심적인 사유로 인해 물질과 사물 등의 비인간은 세계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지만 오늘날 여러 사유들은 이러한 비인간(non-human)을 수동적 사유의 대상이 아닌 실천의 능동적 행위자로 부각시키고 있으며, 그것은 문화·가치·용도·상징 등으로 포획된 ‘물질세계(material world)’로부터 ‘물질들의 세계(world of materials)’로 향하는 우리의 사유와 실천의 확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들에 있어 실제(reality)란 우리의 외부 세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사물, 물질 그리고 의미마저도 세계의 망 위에서 끊임없이 내적작용(intra-action)하며 현실화(actualization)되고 활성화되는 물질과 의미의 매터링(mattering)인 것이다. 이번 강연에서는 사물과 물질로의 사유로부터 사물과 물질을 통한 실천으로 향하는 전환들 속에서 예술과 과학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자 한다.

인간의 미래
2017. 10. 12 (목) 10:00 ~ 12:00

이광형

- 카이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 미래준비위원회 위원장
- 사단법인 미래학회 학회장
- 국가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한국과학한림원 회원, 한국공학한림원 회원

인류의 역사는 도구의 역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기본적으로 도구를 발명한 존재는 인간이다. 그러나 또 다시 인간은 도구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다. 인간이 불과 도구를 사용하면서 다른 동물들과 차별화 되기 시작했고,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다른 동물들을 제압하고 지구를 정복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에도 금속활자, 망원경, 범선, 증기기관 등의 도구들에 의하여 인간의 삶은 혁명적으로 변화했다. 21세기를 살 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세가지 새로운 도구의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 첫째는 하드웨어적인 도전이다. 바이오혁명에 의한 인체의 개량이다. 유전자 가위와 배아복제기술이 실현되어 인간의 인체는 새로운 신체가 되어 가고 있다. 둘째는 소프트웨어적인 도전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고, 일부에서는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여 사물을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 세째는 펌웨어적인 도전이다. 인간과 기계의 소통에서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뇌-기계 인터페이스가 실용화될 것이다. 이러한 세가지 도구의 도전을 받은 21 세기의 인간은 어떻게 대응하고, 인간 중심의 세계를 발전시켜 갈 수 있을지 논의한다.

포스트디지털 사회
2017. 10. 19 (목) 10:00 ~ 12:00

이인식

- 문화창조아카데미 총감독
-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청색기술연구소 소장
- 대한민국 과학컬럼니스트 1호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KAIST 겸직교수 역임
- 저서) 〈4차산업혁명은 없다〉 외 48권

다-다 오픈강좌의 23번째이자 마지막인 시간에 ‘포스트디지털 사회’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포스트디지털의 개념을 살펴본다. 포스트디지털은 21세기 초부터 디지털 기술의 경이적인 발달로 예술과 기술 사이의 관계에 발생하는 급격한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 미국 작곡가 김 캐스콘(Kim Cascone)이 2000년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단어이다. 캐스콘은 이 논문을 “디지털 혁명은 끝났다”는 MIT 미디어랩 정보기술 전문가 니컬러스 네그로폰테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포스트디지털은 디지털 혁명 이후의 패러다임인 셈이다. 미국 아티스트인 멜 알렉센버그(Mel Alexenberg)는 2011년 펄낸 〈포스트디지털 시대의 예술의 미래〉에서 사이버스페이스와 물리적 공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인간화(humanization)를 추구하는 창작활동을 ‘포스트디지털 예술’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맥락에서 혹시 클라우드 슈바프 다보스포럼 회장이 포스트디지털 개념에서 영감을 얻어 “4차산업혁명은 3차산업혁명이 창출한 디지털 세계와 기존의 물리적·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융합에 의해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포스트디지털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문화 콘텐츠를 생산·유통·소비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4차산업혁명은 없다’는 쪽에 손을 들고 있긴 하지만.